



기쁨·눈물... 은혜의 3년



7월 31일(주일) 교회 창립3주년을 맞아 3개 채플 교우들이 벨리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있다.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InChrist Community Church
Jul. 2016 Vol.4 No.7
창립 3주년 특별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안에교회가 세 돌을 맞아 성대한 감사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쁨의 포옹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격에 겨워 울먹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우세요. 마음 놓고 평평 우세요. 오늘은 함께 손잡고 영영 우십시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오늘은 마음껏 울어도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안에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느림하게 세우시려고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그리도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악한 세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안에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최혁 담임 목사님은 주안에교회의 선봉에 서서 교우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사랑으로 안으며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4면에 계속》 | 조성운 기자 |



‘주 안에서 연결된 교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어린이들부터 모든 연령층이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얼마나 간구했고 기다리던 광경입니까!
주안에교회 3주년 기념일에 교회 내 어떤 부서나 어느 방에 가 봐도 웃음소리와 분주한 모습들이었고 친교실에 가득 찬, 잘 준비된 식탁들과 땀 흘리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주방 식구들 등 모두들 감사하며 기뻐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더욱이 분당에서 교인들을 안내하며 볼 때 아래층 위층 그리고 성가대석까지 교인들이 콕차게 모여 함께 드린 예배는 감동 그 자체

3주년을 맞는 마음

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진행된 축 순서마다 유치부 꼬마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우리 교회의 단합된 모습과 향상된 역량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나윤자 권사
(LA채플)

지난 3년간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모두가 눈물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감사하며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었고 교우들 간에 협력이 불완전했다면 오늘의 축복과 감동을 거울삼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는 기도하고 배우며 서로 양보하고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합성가대가 '영화롭도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면서 계속〉 바람이 가득한 배구공은 비바람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주안예교회는 흑암의 권세에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골이 깊으면 메가 높다는 말처럼 오히려 주안예 교회는 시련과 고통을 당당히 이겨내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들이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표정으로 뜨겁게 노래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중후한 목소리의 중창으로, 주안예 교회 중창 팀은 완벽한 화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은수 목사님께서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송시를 쓴 이재왕 형제님의 사연을 소개하며 축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두 시간 반이 넘는 예배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어진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축하의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세 달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로요, 과일 상은 무슨 대회라도 나가려는 것 같은 작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에 나가려는 것도, 누구에게 보이거나 자랑을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준비했고, 교우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더 절절한 감사의 찬양

장로님들 이하 모든 교우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3주년 기념잔치는 세 달 전부터 전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벨리와 LA, 그리고 플러튼 채플이 때로는 함께 모이고, 때로는 이곳저곳을 오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무대를 가득 채운 찬양 팀과 바다위십 팀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등단한 사역자 팀이 연주한 부흥의 북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뚫고, 예배당의 벽도 뚫고, 서러움도 뚫고, 억울함도 뚫고, 멀리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린이들이 감사의 잔치에 빠질 수 없지요. 병아리처럼 노란 옷을 입고 나와서, 지난 세 달간 땀 흘려 연습한 솜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른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세 돌을 맞았다는 감사의 울동이었습다. 이어진 청년들의 바다 위십은 주안예교회의 내일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힘이 넘치고, 역동하는 모습으로 주안예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것입니다.

함께 계시다는 걸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잔치를 당신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약기연주)을 만전하에 선포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안예교회 연합 성가대는 전 교우와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최희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주 안에서 연결된 교회-그 교회(1)'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순종한다고 하시며, 주안예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역설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온 교우들이 일어서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안예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라는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

들을 섬기려고 준비한 것이지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접시 한가득 받아놓았지만 가슴이 메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안예교회는 섬김의 교회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이런 예배 때에는 목사님들은 교회의 상석에 앉고 지시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지만 주안예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상석을 장로님들께 양보하고 2층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분들도 대부분 긴 시간을 예배당 뒤쪽에 서서, 섬기는 자세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방인들 다룰 수가 없었지요. 물론 주방만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불별더위와 싸우며 주차를 안내한 주차요원들, 무대 장치에 혼신의 힘을 다한 미디어팀,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하나님과 주안예교회를 사랑하는 주안예 식구들, 모두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어진 대화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칭찬이 주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경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목사님이시지만, 이날만큼은 온 교우들이 목사님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3개 채플이 하나되어 예배와 섬김 '감동의 장'



행복과 열정, 간절함이 묻어나는 주안에 예배자들 모습



예배 준비하며 체험한 내 마음의 힐링

주안예교회 3주년 감사예배는 저에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허락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주시는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 친구의 소개로 주안예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청년들을 만남으로, '아 언제 이 많은 분들과 또 가까워지지?' 라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찬양팀이라는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제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안예교회 3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준비하는 시간의 소중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셨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 시간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다위십 그리고 찬양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서보는 자리였지만, 연습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큰 예배로 드러졌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며 받으셨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교회에서 연습하는 그시간이 제 마음에는 정말 큰 힐링과 치유였고, 7월 31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선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것들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으셨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한사람 한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였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주안예교회, 하나님의 청년들, 그리고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구유희 성도 (한어청년부)

소망이 있는 교회의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3년을 생각해 볼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서있기조차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주안예교회를 다시 세워 일으키시고, 말씀의 종을 앞장세우셔서 소생 시키시고 또 여러 어려움을 묵묵히 기도, 말씀공부로, 설교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탱케 하여, 이렇게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황영옥 권사 (밸리채플)

밸리 채플이 지어진 이후에 이렇게 아래층, 위층이 꼭 차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니, 나의 가슴도 기쁨으로 벅찼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 주안예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채플이 하나가 되어 맡은 일들을 소리 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남산교회 회원들과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여전도 회원들과 권사님들, 리허설 하는 날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를 모두 정성껏 만들어 섬겨주신 부역 식구들,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큰소리를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사역자들은 큰 복을 들고 다니며 연습을 하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주일날 감사예배는 큰 Concert 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아 마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안예교회에 거는 기대는 너무나 크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30년 300년을 인도하실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훌륭한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살아 있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를 위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을 보일 것 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 은혜의 공동체”



김황희 장로 3년전을 되돌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기적을 베풀어주시어 주안예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치 신생아가 온갖 기쁨을 맛보듯 영적인 회례를 안겨 주시어 걸음마를 건네 해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의 고백이 저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민창식 집사 주안예교회에 와서 영성 깊은 최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안예교회에 와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윤숙자 권사 3년이란 시간보다는 풍성한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한번 말씀의 수문안에서 각자의 본분을 지켜서 더욱 견고한 주안예교회를 일구어가는 소망합니다.



남성우 피택안수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안예교회를 세우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3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제가 훌륭한 분들과 신앙 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 많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3년, 30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김경배A 집사 3년전에 지금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안예교회는 진리, 복음, 섭리, 은혜, 예배, 기도, 만남, 회복, 성장, 헌신, 사랑, 축복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김옥희 피택권사 주안예교회에 함께 한 지난 3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입니다. 앞으로 3년은 하나님의 뜻을 주안예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구선옥 피택권사 열정으로 시작했던게 어제같은데 어느새 3년이 되면서 3곳의 채플이 마련되어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에사더 권사 지난 3년 동안 주안예교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력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주안예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주안예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승현 전도사 여러 가지 이유로 3주년 예배에 못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미정구역 성도님들, 장기로 못오셨던 분들의 깜짝 방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가되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더욱 더 기쁘고 의미있는 예배였습니다.



조이메기 집사 주안에 공동체를 통해 이땅 가운데 주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며 빛을 전하는 주안예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채플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이 주안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박은래 장로 지난 3년간 최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 플러튼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훌륭한 시설의 교육관과 좋은 교사들을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뛰고 달려겠습니다.



김헬렌 권사 최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의 샘물이 솟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러 인연과의 교제에서 피어오르는 잔잔한 평화가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만 아닌 많은 영혼들이 이 기쁨의 방주 안에 들어와 하늘나라를 감사하며 같이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문수경 집사 3년전 개척당시의 열정이 모여서 오늘의 주안예교회를 만드게 된 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일꾼들로 채워진 주안예교회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영주 권사 주안예교회에 와서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분에 넘치는 복도 주셨습니다. 남은 여성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성태 피택안수집사 하나님 계획 아래 세우신 주안예교회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안예교회가 하나 되어가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안예교회 성도님 화이팅!!



김유진 전도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고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Joshua Kim I really liked how the performances corporated everybody and allowed everyone to experience it together. God did teach me to definitely love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ut also the fact that you have people that you can rely on other than yourself in the time of need. God also taught the importance of being one church, one body, and one voice altogether.



Phebe Chang The anniversary service made me really happy to see in christ finally as one church and one body. God's taught me to really cherish the time and memories I can make with my fellow church people's. Even though we don't get to see each other much I am very grateful and appreciative of the people who surround me.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 교회뉴스 • 채플소식
- 멕시코 단기선교 특집
- 사역국 탐방
- 교육부 / 간증 / 칼럼

7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 LA 213.232.3163 .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예수님 사랑 받아가...



멕시코 까말루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찾아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단기선교팀

멕시코 단기선교 '은혜와 감사의 3박4일'

수개월전부터 2016 멕시코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지난 7월 10일과 16일 두차례의 전체 준비모임을 갖는 등 선교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각자 속한 팀에서 준비모임을 가졌고 가지고 갈 선물과 물품들을 packing 하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리고 두장씩의 단체 티셔츠를 지급받고 함께 기도하며 현지로 떠날 마음의 준비까지 마쳤다. 드디어 7월 17일(주일) 예배를 마치고, 벨리

와 LA, 그리고 플러튼채플에서 멕시코 단기선교팀이 3박 4일 일정으로 멕시코 까말루를 향해 각각 출발했다. 모두 63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선교팀은 총무, 건축, 의료, 미용, 전도, 구제, VBS, 음식, 사진약자, face painting/네일 아트등 모두 10개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주일예배 후 벨리와 플러튼에서 각각 출발, 5번 선상에 있는 Aliso 휴게소에서 오후 2시

경 합류, 벨리 여전도회에서 정성껏 만들어 준 점심을 먹고 함께 출발하여, 총 10시간이 넘게 걸린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지에 도착하였고, 기도와 다음날 사역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은 후 12시쯤 되어서 취침에 들어갔다. **▲새벽전도:** 18일(월) 새벽 4시, 식당봉사를 제외한 모든 선교팀은 새벽에 농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컵라면 300개와 커피를 준비하고 2개 지역으로 팀을 나누어 전도사역을 실시했다. <10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 교사칼럼

말씀 안에서 훌쩍 커가는 아이들 그 사랑스러움

안녕하세요. 벨리체플 IC KIDS에서 킨더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이지혜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주안예교회 벨리체플로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자리에서 봉사 하고픈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로 부터 교육부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은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오랜 시간 일을 했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줄곧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에 미국에서 만큼은 잠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줄곧 피해 다니면서 누군가 제게 교육부 말을 꺼내면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귀를 막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새해 즈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는 저만 좋아하는 봉사는 그만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섬김을 먼저 배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방황을 끝내고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을 기대하며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부로 들어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희반 아이들은 IC Joy(유아반)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눈에는 마냥 아기처럼 보였고 너무나 맑게 보였습니다. 반짝 거리는 눈빛으로 오늘은 무엇을 할지 궁금한 표정을 보여주며 저만 바라보던 아름다운 그 아이들이 아직도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나

지금 저희반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음을 배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늘 배운 암송말씀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흑, 말씀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서로 도와주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록 선생님이 써 준 짧은 기도문을 눈으로 보며 읽는 시간이지만 반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 여기며 서로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저에게 이렇게 사랑스런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잠깐 저희 킨더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올 해 1월부터 교육부에서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써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아직 긴 문장쓰기를 힘들어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한 구절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숙제 같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짧은 단어쓰기로 바꾸어 진행하면서, 지금은 우리아이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아마도 일주일동안 숙제로 해 온 말씀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하고 생각 해 봅니다. 어떤 아이는 예배 시작 전, 선생님을 보자마자 노트부터 꺼내어 보여주

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만 보라고 자기 노트를 제손에만 쥐어주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제가



이지혜 집사

노트 한 권을 집어 들 때마다 자기 차례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써보았던 말씀을 기억해 내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Love enemies" 말씀을 여러 아이들이 써 온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같은 요일에 같은 말씀으로 각 자 집에서 써 온 것을 신기한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동안 저에게 맡겨 주신 밝고 순수한 우리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의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연합산행

벨리·플러튼 40여 교우들 함께 아름다운 동행

지난 7월 9일 토요일 주안예교회 벨리체플과 플러튼 체플의 등산팀 총 40여명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친 후 Bear's Canyon 으로 함께 등산모임을 가졌다. 이 날엔 특별히 최혁 담임목사님 가족과 한대일 전도사님 부부께서 동참해 주셔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30분 조금 넘는 거리를 카풀로 이동하니 벌써 산을 넘는 길의 풍경이 너무 좋아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먼저 와서 넓고 그늘진 훌륭한 자리 2군데를 잡고 계시던 분께서 한 자리를 무상으로 분양 해주시어 우리는 꽤나 즐겁고 행복한 식사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은 이방길 장로님의 고교 선배님 이었다고 한다.

처음 등산 입문하신 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코스였지만 왕복 약 6마일, 3시간의 등산 거리를 감안해서 중간 중간 쉬어가며 모두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폭포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 정말 웅장(?)한 폭포가 거기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에게 체력이 뛰진다고 말씀하신 최목사님은 축구장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에너지 넘치는 걸음을 보여주셨다.

땀을 흘린 3시간여의 등산 후에, 맛갈스런 김치와 여러 가지 풍성한 반찬을 마련해 오신 분들과, 맛있는 바베큐와 새우구이를 직접 구워서 제공 해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에 점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한 꿀맛 이었다.

풍성한 식탁과 행복한 대화,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뒤로하고 우리 모두는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해 늦지 않도록 서둘러 뒷마무리를 마치고 하산하였다.

이제 종종 이런 기회를 통하여 3개 체플이 모두 함께하는 등반을 생각하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해본다. | 오병순 기자 |

■ 여전도회 소식
(플러튼채플)

교회 구석구석에서 숨은 봉사, 사랑의 향기

주안에교회 각 채플에 남녀 전도회가 올 초에 조직이 되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향기 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채플 모두가 숨은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성도들의 추천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질서를 갖추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플러튼 채플은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불편한 점도 많고, 구석구석 손볼 곳도 많지만 정부로부터 역사적 건물로 지정되어 마음대로 고치거나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들의 손이 가야되고 이런 일을 위하여 전교우들이 모두 나서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년 초에 조직된 여전도회 일꾼들의 수고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각자가 청소도구를 가져와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창문도 닦고, 녹슨 손잡이는 광도 내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욱 플러튼 채플의 여전도회는 기존의 조직이나 인맥이 거의 없이 새로 조직이 되어 성도들을 연결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 회장님께서 7순의 고령에도 솔선수범하시며, 구석구석 할 일을 찾고 몸으로 회원들을 독려하시며 앞장서



시는데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누구 못지않은 숨은 봉사자이지만 부회장이신 김은실 권사님은 회장님 칭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2월 말에 조직되어 틀을 갖추려도 없이 봉사에 나선 여전도회입니다. 일단은 조직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해 바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으로 먼저 5월에 교회 노인들의 식사를 대접한 것이 첫 사업이었습니다. 갈비찜에 각종 나물, 북어찜 등등 십여가지의 고급 요리를 회원들이 정성껏 만들어 노인들과 교회 일꾼들을 초청해 대접하고 선물도 한 아름씩 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엄마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주안에 운동회 때에 과일들을 직접 사서 작품을 만들어 교우들에게 대접한 것도 플러튼 여전도회였습니다. 또한 교우들의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정기적인 사업으로 매달 한 번씩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 기도회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남전도회와 함께 두 번째 토요일에는 등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업은 매주 주일날 교우들의 점심 봉사입니다. 물론 각 교구와 선교회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전도회 회원들입니다.

“여전도회가 골격을 갖추어나가고, 봉사의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니 회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각 회원들의 소리 없는 숨은 봉사에 주안에교회가 날마다 교우들과 지역 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김영희 권사).” “저희들은 기초를 쌓는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향기 나는 수고와 헌신에 다른 분들도 감동받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서미숙 집사).” “저는 7여전도회 소속인데 회원의 대부분인 젊은 엄마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움직여지는 여전도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들보로 봉사의 중심에 설 것이고 저도 회장님을 도와 열심히 뛰겠습니다(김선영 집사).” 이에스더 권사님은 여전도회의 일을 ‘목회를 돕는 잡일’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교회에서 부를 때 달려가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은 지도력이 탁월하십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지시하시고, 현장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 솔선수범하시는 분으로 이런 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이경희 피택권사).” | 조

■ 체육국 소식

교회 대항 리그전... 응원 오세요

드디어 제1회 남가주 야구협회 교회 대항리그가 8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1회대회에는 8개팀 2개조로 나누어 리그전을 벌인후 9월17일 준결승전, 9월 24일에는 최종 결승전과 3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A조: 또감사교회, 임마누엘침례교회, LA남서울은혜교회, 선한침지기교회/ B조: 주안에교회, 에너하임익스체인지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나성열린문교회 이며, 첫시합은 8월 20일 주안에교회와 에너하임익스체인지교회의 게임이, 320 N Orange Ave. Azusa 에 있는 AZUSA MEMORIAL PARK 에서 있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팀의 이름으로, 우승팀 교회가 지원하는 장애인 단체에 1000불을 DONATION한다고 합니다.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참가와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 및 후원문의: 야구팀장 김진경 피택안수집사/ 213-545-4878)



이른 아침 농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라면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새벽전도·VBS·재활센터 방문·주민 초청 등 알찬 사역

〈7면서 계속〉 전기, 수도가 없는 극도로 낙후된 지역에서 하루 10달러를 벌기위해 농장에서 종일도록 고생하는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컵라면과 커피를 끓여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막 출발하는 버스를 타느라 미처 컵라면을 받지 못하고 일터로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초코파이와 전도지를 나누어주었다.

둘째날(19일) 새벽에는 4개지역으로 나누어 같은 사역을 통해, 현지인 목사님이 버스에 올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면, 우리 사역팀이 컵라면과 커피를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전도를 실시했다. 500개의 컵라면과 여분으로 가져간 사발면까지 모두 나누어주고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야 이심을 전하고, 수많은 그곳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기도했다.

▲VBS와 협력선교: 첫째날(18일), 성이삭 전도사를 포함한 14명의 우리 ICY 팀원들이 VBS 사역을 필드에서 실시했다. 선교센터에서 출발하여 약 30분 후에 현장에 도착, 약 300여명의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고, 현지 Rudy 목사님의 인도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현지 아이들과 미니축구를 하기도 했고, 미용과 face painting, nail art, 그리고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 선물로 주었다.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지원 받은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고 핫도그와 솜사탕, 그리고 빙수를 만들어 잠시나마 저들의 배를 부르게 하였다. 하루 10달러

의 소득으로는 소다 한병을 사먹을 수 없는 저들, 많은 아이들이 신발이 없이 사는 곳, 수도나 전기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 희망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잠시나마 먹을것을 풍성이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둘째날(19일) 10시 30분에는 선교센터에 200여명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배와 함께 찬양, 율동등 첫째날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였고, VBS 팀원들이 여러조로 나누어 재밌고 다양한 게임을 많이 준비, 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칠리핫도그와 함께 back pack, 티셔츠와 바지, 속옷, 머리빗 등 생필품, 그리고 쌀과 콩 등을 나누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의료사역: 열세살만 되어도 결혼을 하는 등, 조혼과 조산 그리고 다산으로 인해 특히 여인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의료 사역팀은 전했다. 이틀동안 50여명의 현지인들에게 침술을 통하여 허리와 디리등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전하므로 우리의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함을 느꼈다.

▲건축사역: 준비해 간 여러개의 슬라관널과 조명등을 선교센터 곳곳에 설치, 낮에 충전했던 전력으로 밤이 되면 건물 외부 곳곳을 환하게 밝혀주어 다니기에 한층 편리해졌으며 또 전기료도 아껴게 되었고, 더욱이 센서까지 달려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므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활센터사역: 8명의 전도팀과 VBS팀이 함께 근처 재활원을 찾았다. 30명의 봉사자들이 100여명의 마약에 찌든 사람들의 재활을 돕기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함께 찬양과 기도도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전했다.

▲기타사역: 선교팀이 지치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섬겨주신 주방팀, 현지까지 직접 운전하고 내려오시어 기도와 함께 새벽전도를 같이하신 담임목사님과 한전도사님, 이외에도 선교팀이 아무 불편함 없도록 준비한 총무팀과, 3대의 교회 벤차량을 준비하고 또 직접 운전한분들, 선교팀의 출발과 도착 때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 기도와 선교 후원금으로 도움을 주신분들 한분 한분의 노고와 사랑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린다.

둘째날 VBS사역을 마치고, 120여명을 버스에 태워 데려다 주려고 함께 선교사님과 떠났다. 그리고 현지인의 가정을 한군데 방문하려고 하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3시간 여를 길에 갇혀버렸다. 동행했던 현지 신학생은 근처에 방황하고 있는 서너명의 노숙자들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주며 20여분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렇게 저들이 열정을 갖고, 또 저들의 사역을 돕는 많은 손길이 있는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지역이 복음화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선교센터에서 현지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찬양하고 선물을 나누는 중고등부 선교팀

딸아이 눈물의 체험담... 성도들 간증 ‘희망의 노래’

2016년 7월 17일 이제 16, 11살된 두 딸이 멕시코 단기선교를 떠났다. 삶에 매여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나는 지나는 말로 엄마없이도 갈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했을 뿐인데 바로 참가하겠다고 나서 한번 놀라게 하더니 준비를 하면서 둘째의 신앙이 강화되어 두번 놀라게 했고 날짜가 다가올 수록 알 수 없는 기대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에 심지어 떠날 수 없는 나 자신이 안쓰러워졌다. 일정을 받고는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하면서도 웃음꽃이 피었고 이 짧은 선교를 통해 자기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대화하는 두 아이들을 지켜보며 난 참 행복했고 감사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보다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고 계셨고 내 작은 다짐에 크고 놀라운 화답으로 내 삶에 힘을 실어주셨다.

7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벨리체플로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난 다시 감사 또 감사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빛났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칭찬하시며 아이들의 헌신된 모습에 본인들이 은혜 받고 자극 받았다고 하셨다. 이번 선교여행에 중고등부의 역할이 빛난던 것은 이를 위해 몇배 더 정성을 드리며 아이들을 준비시켰던 성이삭 전도사님을 포함 교역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커니사모님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들 마이카를 뒤로 하고 이 여행에 동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도편달에 힘을 더했다고 한다.

3박 4일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작은 아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눈도 아련하긴 마찬가지였다. 정해져있는 짧은 시간 안에 목적인 일들을 다 해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는 꽤나 압박했고 그럴수록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상황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만감이 교차해 힘이 들었던 모양이다. 사전교육을 통해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졌지만 며칠 후엔 떠나야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꽤나 치열한 하루 하루를 보낸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도 했다. 그곳 사람들이 안쓰럽거나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길 바랐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뜨거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만큼 절박하지도 못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도 그들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게 너무 화가나고 속이 상했다.

선교여행에 동참한 어르신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도전받았고 중고등부 어린 친구들은 삶의 패턴이 한번 망가져 재활센터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도전받았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을 전하고 나누려고 떠난 여행에서 우리는 뜨거워진 심장을 선물로 받아 돌아왔다.

7월 24일 주일 오후 5시 LA체플에서는 선교

여행 감사예배가 드리지기도 했다. LA체플을 비롯해 벨리체플부터 플리튼체플에서 참가자를 포함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여행 일정을 마무리지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리였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분들이 아직도 마음에 두고 온 그곳의 사람들을 품고 이 행사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다.

3박4일동안 주방에서 섬기는 팀원들을 또 다시 온맘으로 섬겼던 주방팀, 까만 얼굴이 더 까맣게 되어버리도록 피약벌에서 수고한 건축팀, 어린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온맘과 정성다해 섬겼던 중고등부 VBS팀까지 그들의 열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이 분명하다.

온가족이 총출동한 문성훈 피택안수집사님은 한발 앞서 도울 것 좀 없나 만난 그 초라한 사람들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다. 선교지를 떠나며 마무리짓지 못한 일들이 맘에 걸려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었다 하셨다. 14년 전 밀라노전도를 시작으로 녹녹치 않은 선교여행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는 황화진 집사님.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하는 복음을 위해 돌아오는 8월 보름동안 선교를 떠나신다고 기도부탁도 잊지 않으셨다.

<14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멕시코 선교를 다녀와서

서슴없는 사랑, 내 눈가에 촉촉함

주안예교회에 와서 최혁 목사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믿음의 선배인 사도바울의 열정적인 선교여정을 듣고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기선교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하는 단기선교인지라 가기 전부터 두려움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여기와의 너무나 다른 환경에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바울은 그 껍껍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최악의 환경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나날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며칠 다른 환경에 있다고 “죽진 않을꺼야” 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은 교회에서 멕시코로 출발하는 미니밴 안에서부터 마술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주안예교회 모든 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배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께 도착하여 매우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모든 여정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고 힘든 상황과 피곤함 속에서도 너무나 수고한 ICY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순종과 사랑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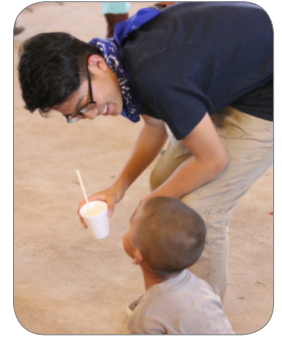
제가 제일 생각나는 한 권사님은 작년 까말루단기선교를 체험하고 오신 분이셨는데 본인의 옛 생각이 나신다면서 더러운 아이들을 꺼안고 이빠하시며 한명한명 찾아가 머리를 감겨주시고 씻기 싫다고 도망치는 아이들과 장난도 치시며 쉬지않고 섬기시는 그 분의 사랑 가득한 눈빛과 행동들이 제 눈가를 적시고 입가의 미소를 띄우게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서슴없는 사랑이여기의 환경을 두려워했던 절 매우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에서 손이 모자라 두어팀을 섬기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쉬는시간 없이 뛰어 다니셔서인지 밤에 많은 여성분들 방에도 수고하신 흔적들의 코고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소리로 들리셨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단기선교에서 하나의 아름답고 잊지 못할 추억을 저 하나 가지고 갑니다. 하루의 여정을 다 끝낸 늦은 월요일 저녁 잘 익지도 않은 감자를 호일에 감싸 두 남자집사님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구운 그 감자의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과 거기 계신 선교사님 등 몇명이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감자를 먹으면서 여집사님의 멋진 통기타소리와 함께 저희는 한 시간정도 노스톱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그 곳이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체험 할 수 있을까요? 어지럽고 바쁜 생활에 찌들어 사랑을 줄줄도 사랑을 받을줄도 모르는 우리... 그러나 그 곳에선 모두가 서슴없이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을 모두 받아준 까말루 사람들... 그 때묻지 않은 곳에 저희 선교팀이 남겨둔 복음의 씨앗이 언젠간 아름답게 자라나 그 지역에 수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지현 성도
(플러튼채플)



Daniel Yoon
(EM Hessed)

Experiencing God's Heart

Going on this mission trip was truly a blessed and learning experience for me. Although there were many times when I was physically and mentally tired, I was spiritually alive, constantly thinking about God and learning more about His heart. What made the mission trip different from a retreat was that my purpose of being there was to feed, not be fed, making this an exciting and unique experience.

Even though the only difference between a retreat and this mission trip was the fact that we were serving rather than being served (no distractions, moving to a secluded place, fellowship), the contrast was like that of black and white. Meeting so many others who didn't know Jesus yet might have triggered this, but I was able to fully immerse myself with God and learn more about His heart. It was not just a shallow thought of "I'm here to share the gospel," but I tried to fill myself with His love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and reach out.

For example, there was a moment where some of us were abandoned at the VBS site so while we were waiting, we drank some cold lemonade. We offered some to the children there, and all of a sudden, they all swarmed around the beverage container. It was cute at first, but when the lemonade ran out, they quickly became ungrateful and some lashed out. However, instead of feeling anger, I only felt sadness at the fact that they were so ungrateful when others were being so good to them. This taught me more about God's heart as I was convicted by my own ungratefulness towards Him, that He becomes so broken when we forget the blessings we received and lash out at God for the things that go wrong in our lives. I hope to be more grateful for God and the things He has done, and to learn more about His heart for us.

I was also able to experience the joy that is present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Truly dying to myself and letting the love of God flow through me was so refreshing and joyful that I wanted to keep serving others and not myself. My physical and mental fatigue faded away as I served those kids and adults, only keeping in mind that I was expanding God's kingdom, and I should truly be joyful for that. Honestly, if I was home and I was that tired, I would've stopped playing games and gone to sleep long time ago. This just taught me how powerful serving God can be, and how amazing it feels when my body is not my own, which makes me want to keep serving.

Finally, I had a newfound urgency to share the gospel. Yes, it was so joyful to evangelize early in the morning, serve the innocent kids out under the hot sun, and evangelize to the exhausted workers in the evening. I felt so blessed when I imagined how some would go home with their gifts and their stomachs full, and thank God for the blessings they received, bringing them closer to Him. <13면에 계속>

이종식 선교사와의 인터뷰

“재활·노숙자 훈련시켜 원주민에 전도사역”

▶ 먼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해오시는 선교사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터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게 되었나요? 네, LA에 있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던 중 멕시코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준비하여 2002년도에 은혜한인교회의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까말루지역을 선교지로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미국 국경과 가까운 티와나나 엔세나다쪽은 70여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 더욱 낙후된 까말루 남쪽지역은 단 4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세나다에서 자동차로 2시간이상 떨어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현지인들의 생활환경은 어떠한지요? 스페인 혼혈이 아닌, 순수 원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없고, 최저생활비도 벌지 못하여, 집세등 경상비를 제외하면 하루 한끼나 두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또 조흔과 다산으로 인하여 생활이 더욱 어렵고 교육을 받



지 못하여 대부분이 문맹입니다.

▶ 중점적으로 사역하시는 몇가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목회자 양성과 기술교육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의 목회자를 양성하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십명의 현지인들에게 건축기술을 가르쳐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루 10불이지만 우리에게 건축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하루 20불~25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현지인들이 너무 의욕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교센터

에 데려와 훈련을 시켜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거나 신학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노숙자였거나 재활원 출신들입니다. 저들이 정상인이 되는데에는 우리의 인내와 지속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나 성도님들께 바람이 있다면? 물질과 기도 그리고 단기선교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아가서 선교지에 많이 방문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선교하시든지 그곳 현지 선교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현지에 맞는 맞춤형 선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의 까말루지역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기선교를 행하시는 주안예교회 최혁담임목사님과 교우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까말루 바닷가에 모인 단기선교팀

〈12면서 계속〉 But when I imagined how others would go home without receiving the Holy Spirit, how they might not be there next time to receive it, how I could've done something more to maybe lead them out of the place of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my heart broke. If I had spent one more minute loving the mischievous teenagers, if I had talked to one more kid with my broken Spanish, if I had been a second faster on the

morning buses, one more soul could have been saved. I became so convicted by this to reach out for those lost souls with all my effort, because if I don't see that face after I die, it's already too late.

I know I fell short a lot of times, but now I know a little better about what it means to be on a mission, which is definitely not a vacation. I am so grateful that I was able to have this experience before I head off to

college, and I hope I can go on more mission trips in the future. I hope I can be more urgent and passionate for God the next time I go on a mission. I hope I can step out of my comfort zone more often to save more souls. I hope I can continue to be passionate and not ever forget this experience. And I definitely hope that I can encourage others to go next time so they can experience the same convictions I experienced.

■ 의료국(밸리채플)

성도들 건강 위해 침술 • 종합검진 의료 박람회도

감사와 사랑은 마음의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귀한 명약이라고 한다. 또한 육신의 통증을 호소하는 자녀를 위해 의료진을 허락하신 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이다.

우리 주안예교회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의료계분들이 모여 밸리채플 친교실 2층 401호실에 진료실을 만들어놓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 많은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로 미국 적십자사에서 RN으로 은퇴한 이복희 권사를 팀장으로하는 밸리채플 의료 사역국으로, 카이저병원(Sunset)에서 RN으로 근무하는 이은실 집사를 비롯하여 12~13명의 RN들이 틈내어 봉사하고 있다. 특히 카이저병원(Panorama city)에서 18년째 RN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명안 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사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위해, 한의사 자격증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1년째 개인진료실을 오픈, 퇴근후와 주말에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본교회에서는 격주로 주일예배 후부터 오후 4시까지 부인 정애순 집사와 함께 봉사하고 있다.

특히 침술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로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명의로 소문나 있어서 찾는 이가 많은데, 통증과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제 3년 후에 은퇴를 하고나면 더욱 많은 시간을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구석구석 아픈 곳이 치유됨을 경험한 분이 라면 누구나,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



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 카락까지 세어보시며 필요한 곳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큰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매일 건강을 유지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음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중에 단 한명만이 주님앞으로 나와서 감사하며 증거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한명의 문둥병자처럼 증거자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의료국에서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 밸리채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한방치료를 중점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의료박람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종합건강검진을 돕고있고, 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으로부터 어려움 없이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교회의 단기선교에도 적극 동참하여 나후된 지역에서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의료혜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안예교회 밸리채플 의료국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곳은 어디든 달려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더욱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 더욱 많은 의료사역이 우리 주안예교회를 통하여 불일듯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김신실 기자 |



<5월호 >

| | | | | | | |
|---|---|---|---|---|---|---|
| 소 | 제 | 여 | 리 | 고 | 구 | 약 |
| 원 | 기 | 호 | 산 | 파 | 속 | |
| 치 | 야 | 하 | 침 | | | |
| 엘 | 리 | 야 | 김 | 불 | 가 | 승 |
| 리 | | | | | | 리 |
| 야 | 고 | 보 | 서 | 여 | 호 | 수 |
| 백 | 닐 | 호 | 넬 | | | |
| 아 | 달 | 빌 | 하 | 아 | 갑 | 히 |
| 담 | 대 | 다 | 투 | 다 | 요 | 람 |

5월호 당첨자: 김명자, 박경원, 정유정, 정혜옥, 이동훈, 이용화, 황영옥

<11면서 계속> 마지막까지 망설이다 함유하셨던 JOSHUA CHO 집사님은 거지 나사로 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행사가 행여 자기 만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소망 없었던 눈망울을 기억하며 지금도 사위를 하다 물을 잠그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수많은 불가사리 한두개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는 것만 같은 이 선교여행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종교등부 소속 JUSTIN PARK은 아빠의 권유에 순종하는 맘으로 동참해 고통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현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행복을 느꼈고 느꼈었던 본인의 삶을 회개했다고 했다. ELIM CHOI 또한 티켓 한장 더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아이에게 티켓 한장을 더 주면서, 티켓이 떨어지니 언제 그랬냐며

자기 곁을 떠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나님을 느꼈다고 했다. 난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며 많이 울었다. 내가 참 많이 오염됐었구나, 나보다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감사했다.

예배중 우리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열린 마음은 한곳을 향해 있었고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졌다. 역시 선교는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숙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론 꽃비를 만드는 바람으로 혹은 천지를 진동하는 환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흠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하고 험한 사건 사고를 만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격동의 세월에 도 안전함을 느끼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지금 내곁을 지켜주는 동역자를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나누려 간 곳에서 오히려 큰 선물을 받아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예비하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몇날 며칠을 지새우며 찬양해도 과함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그 막중한 책임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 두 눈이 퉁퉁부은 딸, 육질이 난무하는 세상음악이 아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목청껏 따라 부르며 사위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보자 새삼스러운 다짐을 한다.

■ 새가족국(LA채플)

따뜻한 미소 • 세심한 배려로 새 교우들 '편안함'

LA채플에는 다른 채플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의 사역국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사역국은 새가족국이 아닐까 싶다.

올해 초 LA한인타운의 중심부에 성전을 마련하고 주일예배를 드리게 된,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의 특성의 영향으로, 매주 방문하시고 또한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눈여겨 잘 살펴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이 서먹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주안예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섬기는, 아주 귀한 분들이 사역하는 부서이다.

특히 LA채플은 한어청년부와 영어청년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므로, 많은 새가족 청년들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LA부근의 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들의 등록이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주안예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한층 젊어지고 밝아질 전망이다.

최미정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안예교회의 첫 인상을 상냥함으로 섬겨주시기에 충분한 미소로,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강미녀 집사, 유영에 피택권사, 최애솔리 집사, 홍명옥 집사, 성세라 권사)이 모여서 완벽함을 자랑하는 LA채플의 새가족국, 바쁜 주일 아침에도 일찍부터 나오셔서 교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챙기셔서 예배에 임하는 마음에 기쁨과 설렘의 마중물을 나누



어 주시는 LA채플의 새가족국 팀원들, 서로 미루기 보다는 서로 먼저 감당하려는 왕성한 의욕으로 사역에 임하는 그분들이 계셔서, 이곳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심없이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아직은 벨리채플이나 플러튼채플에 비해서는 연약한 LA채플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최혁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사모하는 LA지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영혼들이 매주 새로 찾아오고있어 새가족부는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한주 한주를 보내고 있다. 몸은 조금 바쁘지만 LA채플의 새가족국 모든 국원들은 매주 새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에, 주일 아침이면 기쁨과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LA새가족국이 있는

한 LA채플을 새로 방문하시는 모든분들은 그들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에 새로 왔다고 기보다는 몇 년 동안 다녔던 교회처럼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새가족국 팀원들 모두가 품고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고, 또 몸소 실천함으로 주안예교회 LA채플을 찾는 모든 이의 본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LA채플에는 교육부를 위한 충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님들의 출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듯 LA채플 새가족국은 주일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어느새 주안예교회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 제3기 주안에 힐링캠프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3)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안에 힐링캠프(IC Healing Camp)가 드디어 9월 18일(주일)~21일(수)까지 3박4일 일정으로 Big Bear Pine Crest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회에 많은 일정으로 인하여 열리지 못하여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문의와 요청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엔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남, 녀



각각 6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신청을 서두르시길 권해 드립니다.

1, 2 기의 경우 타주는 물론, 한국에서 오신

참가자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최혁 담임목사님의 총 13번에 걸친 말씀 증거로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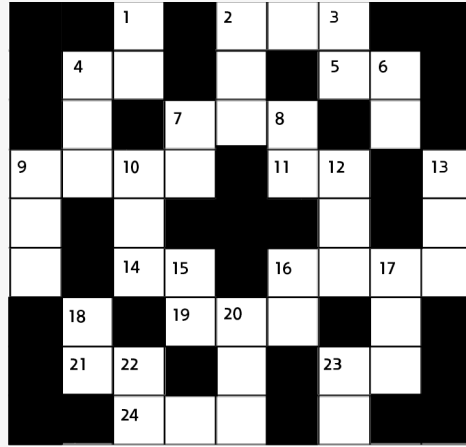
참가비는 1인당 250불이며, 출발 하루 전날(9월 17일)까지 납부하시면 200불로 50불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Supporters 접수도 함께 받고 있으니, 이번엔 또 한번 크신 성령체험을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가문의: 이방걸 장로 213-407-4007)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2.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민 18:21-32, 레 27:30-33)
 4.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 제1대 제사장
 5. 다투던 일을 풀고 사이좋게 지냄(눅 12:58)
 7. 장차 세계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예루살렘 교인(행 11:28)
 9.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부터 새로 온지라"(행 18:2)
 11. 오만하고 명예심이 많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온 가족이 죽음(민 16:32-33)
 14. 사사 삼손이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토설하여 잡힌 곳(삿 16:21)
 16. 삼손 때부터 다윗 때까지 블레셋이 점령(삼상 6:17)
 19. 서로 가까이하여 사이좋게 지내다(히 10:33)
 21. 석영, 담백석, 옥수의 혼합물(대상 29:2)
 23.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여 도르가를 살렸다(행 9:36-42)
 24. "또 여부스 족속과 ()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창 10:16)



3. 서로 잘 어울리게 함(고후 6:15)
 4. 다윗의 아내 중 한 사람(삼하 3:4)
 6. 비가 내려 가뭄을 겨우 면함(시 104:11)
 7. 시므온의 아들로 나귀를 치다가 운전을 발견(대상 1:40)
 8. 일의 내용이나 결과를 말로나 글로 알림(민 13:27)
 9.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악처로 유명(왕상 21:25)
 10.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로 야곱을 더 사랑함(창 25:28)
 12. 르호보암은 이곳을 견고한 요새로 지킴(대하 11:9)
 13. 유다 서북부 평지의 아모리 사람의 성(수 10:12)
 15. 구약 시대에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민 25:5)
 16. 에서의 처요 엘리바스의 모친(창 36:10)
 17. 여신도 마리아의 남편(요 19:25)
 18. 갈렙의 자손, 헤브론의 아들(대상 2:43)
 20. 여자의 귀물에 거는 장식품(출 35:33)
 22. "()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창 6:9)
 23. 구약 제 18권째 성경

- <세로 문제> 1. 읍마에서 갈멜산까지의 평야로 다윗의 목장이 있던 곳(대상 27:29, 사 35:2)
 2. "또 자기 ()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함당치 아니하니라"(마 10:38)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사라택시 Sara Taxi
 주정부허가업체
 TCP35881-B
 Airport Permit #
 LAX 11611242
(213) 408-6671
 공항 • 일일관광 • 장거리 • 아울렛 • 통역 • 요세미티 • 세코야 • 샌프란시스코 • 팜스프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 밸리채플 /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 수요영성집회 /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헬월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8:00pm

재방송: 매주(토) 1:0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8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7기)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성,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